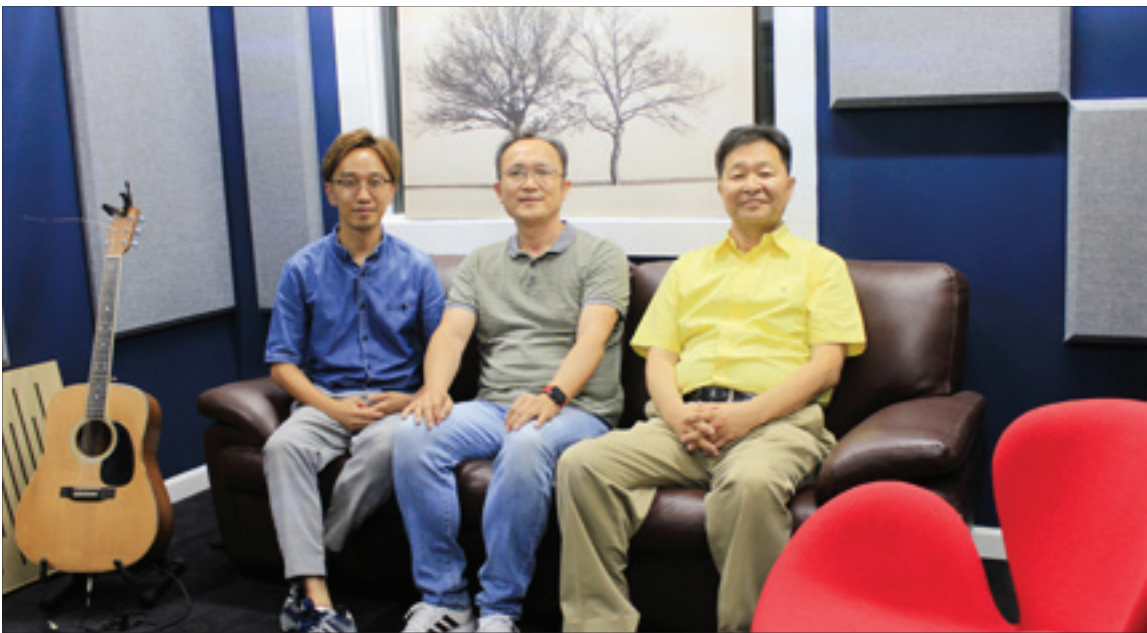


“미주장신대 블랜디 시스템, 양질의 온라인 신학 교육의 장 마련”



오른쪽부터 미주장신대 교무처장 김루빈 교수, 원격 온라인 교육처장 우장훈 목사, 미디어 영상 디렉터 정철현 목사 ©기독일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 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가 올 가을학기부터 원격 교육 시스템인 블랜디를 도입하고 차별화된 온라인 신학교육을 선보인다. 미주장신대는 블랜디 시스템을 통해 학교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

업이 온라인에서도 현장감 있게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또 다각화된 모니터 시스템과 생동감 있는 음향 기술로 온라인으로 강의에 참여한 학생이나, 강의실 현장에 자리한 학생과 교수 모두가 한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의는 녹화와 편집 과정을 거쳐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제공된다. 블랜디 시스템은 강의실 현장

수업과, 온라인 실시간 수업, 녹화된 영상 수업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 전세계 어디에서도 미주 장신대가 제공하는 양질의 신학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온라인 교육처장 우장훈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온라인 원격 교육을 도입해 미주 한인 신학교 가운데 가장 선진화된 온라인 신학 교육을 제공해온 미주 장신대는 팬데믹 기간 블랜디 시스템 도입으로 한 차원 높은 온라인 신학 교육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학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 미주장신의 모든 강의는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이뤄지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참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현장 강의와 다를 바 없는 수업 내용과 편리성 때문이다.

미주장신대는 앞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온라인 분야에 더욱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미디어 영상 디렉터 정철현 목사

는 “온라인 강의도 마치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교수와 학생들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미주 장신대는 올 가을학기부터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의 졸업 이수 학점을 종전보다 10학점 적은 89학점으로 조정하고 신학교 졸업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필수 과목을 다소 축소해 졸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 과목을 대폭 확대해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목들을 추가했다.

김루빈 교무처장은 “학생들의 졸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선택 과목 수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루빈 교무처장은 “특별히 한인 교회에서 EM 사역을 원하는 한인 1.5세 또는 2세들이 신학과 함께 한 인교회의 문화와 사역을 배우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탈레반이 삼킨 아프간, 미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재점령한 가운데,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대형교회 하베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 설립자인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는 미군 철수를 “매우 잘못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우리 모두는 지금 아프간에 있는 기독교인 형제

자매를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며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 중대한 순간에 대통령과 참모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계속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 구호 단체의 성명을 인용, “아프간 전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며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사람은 누구나 그들의 신앙때문에 살해될 수 있으며, 배신이나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프레스턴우드 침례교

회’의 잭 그레이엄(Jack Graham) 담임 목사는 “미국인들은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아프간 붕괴와 탈레반의 장악, 인도주의적 위기를 허용했는지에 대한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은 텍사스 주 의원들에게 “미국 하원에 대답을 요청하라”며 “미국과 아프간 민간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미 ‘히스패닉기독교리더십컨퍼런스(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회장이자 새크라멘토 뉴시즌 교회의 담임인 사무



아프간 IS인 호라산의 소년병 전문 양성훈련소 모습. ©동영상 캡처

엘 로드리게스(Samuel Rodriguez) 목사는 아프간 철군을 “아프가니스탄 국민, 특히 하나님이 주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에 대한 수치스러운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바이든에게 “즉시 상황을 통제하고 이번 실패로 초래된 막대한 인적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피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피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2021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K-GOSPEL BAND CONTEST

총 상금 \$14,000

포스트 팬데믹, 가스펠 밴드로 함께 합니다.
온 세대가 찬양으로 위로와 회복이 되는 K-가스펠 밴드!

접수기간
2021년 8월 1일(주일) ~ 9월 15일(수)
접수방법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kgbc.com) 참조바랍니다.
예선: 2021년 9월 29일(수) 온라인 영상 심사
본선: 2021년 10월 27일(수) 무대공연 심사

참가부문: 보컬 밴드(3인 이상)
참가지역: 크리스천 누구나 나이, 성별 상관없이 참여 가능 (교회연합 밴드 우대함)
참가비용: 1인당 \$50
시상내역: 대상-상장, 음원/영상 제작지원 및 상금 (총\$5,000/1팀)
우수상-상장, 음원/영상 제작지원 및 상금 (총\$6,000/2팀)
특별상(작/편곡, 보컬, 연주부문)-상장 및 상금 (총\$3,000/3팀)
*본선 입상자 전원 GBC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및 각종행사 공연 참여

주최/주관: GBC 미주복음방송 (am1190 in LA) | 특별후원: 미주 CGNTV / CTS America
협력기관: 중현선교교회 / KCMUSA / Lighthouse Studio / OneHeart / Overflow Ministry / 아멘넷 / 기독뉴스(CBSN)

미주복음방송 www.kgbc.com / 714-484-1190 / 2641 West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

크리스천 BAND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기쁜우리교회 2021 장학생 선발, 총 8만 6천 달러 장학금 수여

히스패닉 커뮤니티 장학금 신설 매년 1만 달러씩 향후 10년간 지원 계획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장학위원회는 지난 22일 2021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제4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일반학생 13명, 목회자 선교사 자녀 13명, 신학생 14명 등 총 40명에게 8만 1천 달러와 멕시코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학장 이상훈 선교사)에 5천 달러를 포함해 총 8만 6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스페니쉬 장학생 분야에 아주사 퍼시픽 세미나리에 재학중인 신학생 2명이 장학금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기쁜우리교회는 다민족을 섬기며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학교에 매년 1만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쁜우리교회는 이날 선발된 모든 장학생들에게는 2천 달러의 장

학금을 전달했으며, 히스패닉 장학생에게는 2천 5백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김경진 목사는 “기쁜우리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담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송의용 장로는 “교회가 창립하던 첫해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매해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인사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길 원한다”고 말했다.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와 2021 제4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이 장학금 수여식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독교일보

멕시코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 학장 이상훈 선교사는 “멕시코 신학생들을 향한 기쁜우리교회의 후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한 멕시코 신학생들

이 지역 선교는 물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UC 얼바인에 재학중인 김예린 양은 장학생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하

며 “받은 사랑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광복 76주년 기념 영적대각성 애국집회 성료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제니래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들

아메리카한인연합(총회장 이우호 목사) 주최 제76회 광복절 기념식 및 성령애국집회가 8월15일 오클랜드 카운티 아나해임 비전교회에서 진행됐다.

이우호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경배 그리고 통성기도로 시작된 애국집회 예배는 조현영 목사(큰빛교회)의 사회로 하세화 권사가 기도하고 심명구 목사(한민감사교회)가 설교했다. 심명구 목사는 “교회는 세상의 영적 전쟁 한 가운데 있다”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노래로 시작된 2부 순서는 노성에 목사(영원한 행복교회)의 개회기도에 이어 박성녀 박사가 환영 인사를 전했다. 축사는 윌넣시 시장 에릭 칭이 전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제니래(Jenny Rae)가 연설했다.

제니래 후보는 연설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캘리포니아는 변해야 한다”며 “자신은 정치를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출마했다”고 전했다.

제니래 후보는 또 “누군가 캘리

포니아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주민들을 위해 봉사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전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조현영 목사는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만세삼창에 신유훈 목사가, 이우호 목사는 “왜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해야 하나”에 관한 설명 후 기도도 폐막했다.

이번 집회는 큰빛교회, 한민감사교회, 영원한행복교회, 솔로몬보석이 후원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지역 사회 변화 선도할 것”

한미연합회를 포함해 코리아타운 단체 리더들로 구성된 코리아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Koreatown Redistricting Task Force, Ktown-RTF)는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청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인 단체들은 선거구 단일화를 통해 선출된 지역 대표자들이 코리아타운 지역사회의 관심사를 대변하길 기대하고 있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LA 코리아타운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도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녹지 공간(공원)이 가장 적은 커뮤니티 중 하나”라며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구에 모여 있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이웃 공동체와 함께 하나로 묶이면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와 교육, 도로 안전 등 다양한 혜택을 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운 선거구 재조정 청원


서명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모아진 서명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로스앤젤레스시 10지구 (CD 10) 공청회에서 제출돼 코리아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인 단체 연합은 오는 27일까지 1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3천여 명이 조금 넘는 수가 참여해 한인 사회의 많은 참여가 요청된다.

온라인 청원은 Change.org/UnifyKoreatown에서 가능하다. 또 오프라인 서명 운동은 8월 27일 (금)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마당물 코트야드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화)에는 앤더슨명거 패밀리 YMCA 건물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명 운동이 있을 예정이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2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세미나 “복음 통일 위한 실제적 이해 넓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던 제2차 글로벌 복음통일전문세미나(대회장 임현수 목사)가 지난 14일까지 하와이 코나에서 한 주간 진행됐다.

세미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한반도 통일의 이유를 넘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복음 통일의 방법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호평을 받았다.

총괄 진행을 맡은 박상원 목사(기드온 동족선교회)는 “사회 각 분야의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조명하고 통일의 실제적인 해법을 나눴던 시간이었다”며 “통일을 위한 전문 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제2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세미나 총괄 진행을 맡은 기드온 동족선교회 박상원 목사 ©기독일보

제2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세미나가 가졌던 의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북한 선교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과 전세계 한인들 간 연합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는 분야가 매우 다양해서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연합해야 함에도 그동안의 북한컨퍼런스는 교회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제한적인 모임들이었

습니다.

이번 대회는 정치, 경제, 사회, 농업, 종교,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복음 통일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고, 또 현장과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서 한반도 복음 통일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복음 통일의 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연합단체가 절실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와 전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까?

“미주 한인교회와 전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해외에서 복음을 통일을 위한 연합체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개교회에서는 복음 통일을 위한 북한 선교의 달을 정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특정한 날을 정해서 통일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 설교와 대표기도에서도 빠지지 않고 북한 주민들과 박해 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모임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대회 준비 과정은 어땠습니까?

“2019년 1차 대회를 마치고 차기 대회를 2020년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

리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대회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북한선교와 복음 통일에 대한 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제한적이지만 하와이 코나가 모임이 가능해서 현장 참석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줌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전세계에서 수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끝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회 대회에 참석했던 부부가 올해 대회를 위해 독일 뮌헨에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 제한으로 탑승이 거절됐습니다. 이 분들뿐만 아니라 참석하기로 했던 감사님들도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란타에서는 줌으로 참석하시다가 복음 통일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하와이 코나까지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미주 기독일보에서 SNS 생방송 송출을 담당해주어서 대회 진행에 매우 큰 힘이 됐습니다.”

월드쉐어 후원 기업에 “나눔의 기업 헌판식” 가져



카고존 헌판식 왼쪽 강태광 목사, 오른쪽 박준현 대표

국제 아동 구호활동과 LA 다운타운 노숙자 돌보기 및 도시 빈민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특별 후원 기관들에 헌판식 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 후원이나 특별 후원으로 월드쉐어 활동을 지원하는 교회, 기업 그리고 단체에 ‘나눔의 기업(교회, 기관)이라는 헌판을 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보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기업과 단체, 교회를 알리는 효과는 물론 월드쉐어 활동에 관심을 갖는 더 많은 기업, 교회 기관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좋

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번 헌판식을 처음으로 시행한 카고존(CARGOZONE INC 대표 박준현)은 정기 후원은 물론 물품 후원을 하고 있다. 특히 세정제를 대량으로 후원했다.

물류 회사인 JH LOGISTICS(대표 노상배)는 매월 정기 후원으로 월드

쉐어의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월드쉐어는 뉴저지 주동행교회(이규연목사)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행복한교회(전진행목사)의 ‘나눔의 교회 헌판식’을 준비하고 있다. 월드쉐어를 통한 나눔과 섬김을 정기적으로 혹은 특별한 기회에 힘을 다해 실천한 교회들이다.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월드쉐어를 통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 월드쉐어는 더욱 신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월드쉐어 USA는 대통령 암살 등 국가적 폭력사태가 발발한 아이티에서는 기본적인 활동만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코로나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파라과이를 위한 특별지원 프로젝트 “파라과이를 구하자!”를 진행하고 있다.



얼바인 베델교회 사별가정회복 팀원들과 김한요 목사

얼바인 베델교회, 사별로 인한 상처 치유 및 회복 모임 갖는다

얼바인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오는 9월 3일(금)부터 12월 3일(금)까지 사별가정 회복 모임 (Grief Share)을 갖는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낸 상실감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의 치

유와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의 일정은 비디오 세미나와 그룹 모임,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 기간 저녁식사가 제공되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등록비는 20달러다.

등록은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상섭 장로(949-735-8472) 혹은 이란해 전도사(949-422-8828)에게 하면 된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사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교구(유신대 명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대대표), 송정영목사(복음선배 공동대표), 권은목사(주필리미주대표), 신정민목사(동일대 대표), 유관지목사(동일대대표), 김민석목사(KCC공동대표)
* 영회 책은 아예 번역제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판권사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위하여’가 출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출간되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관수리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입니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 동족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런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8년의 경력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19

“로스카보스 교회연합과 산호세 임마누엘교회의 단기선교 보고”

필자는 지난 주말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도시 로스카보스 지역에 있는 두 교회의 연합 VBS를 섬기고 왔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산호세 임마누엘교회 단기 선교팀은 매년 멕시코칼리에 있는 우리 신학 교정으로 방문하여 선교 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직접 단기선교팀이 방문하기 어려워 기도 끝에 줌 동영상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중 하나는 지난 8월 2일과 3일 남부 오프닝 선교센터에서 열린 “목회자 IT 세미나”이다. 총 26명의 목회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 두 번째 계획은 로스카보스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한 교회들을 후원하면서 줌 동영상으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VBS)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8월 21일, 22일 현지의 “산한목자교회(우고 목사)와 생명샘교회(오토니엘 목사)” 연합으로 생명샘교회에서 진행되었다.

로스카보스 지역은 해변 관광지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있는 도시지만 그 외곽지역은 빈민촌이 즐비하게 늘어서 열악한 지역이다. 3년 전 우리 학교 졸업생인 오토니엘 목사 내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교회 개척을 선언한 후 그 지역을 찾아서 개척을 시작했다. 2년째 되어서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 개척이 성인 15명 정도로 발전하였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특별히 후원하는 한국 교회들이 개척교회 지원 건축헌금을 보내오면 적합한 지역을 찾아 건축지원을 하곤 했다. 오토니엘의 “생명샘교회”가 예배당을 갖도록 건축지원을 하여 작년 말 예배당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당에서 첫 프로그램으로 연합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각 개척한 교회를 돕고자 이웃의 “산한목자교회”가 연합하였다. 장소는 생명샘교회에서, 교사와 스텝은 산한목자 교회에서, 자료와 진행은 미국 산호세 임마누엘교회에서 맡았다.

2개월간 모든 관련 스텝들이 줌 동영상으로 화상 회의와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준비하였다. 영어로 진행되는 사역자의 통역을 위해서 현지 청년 교사가 지원하였다. 학생들 100명을 예상하고 교사와 스텝 20명이 필요했다. 양 교회

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23명이 자원하였다. 감사하게도 필요한 재정과 물품들은 산호세 임마누엘교회 선교부에서 후원하였다. 처음 계획은 8월 7일과 8일로 정했으나 멕시코 현지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그 지역의 모임이 폐쇄되어서 2주간을 연기하여 8월 21일과 22일에 하기로 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2주간 더 길어졌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모두가 믿고 2주간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지냈다.

필자는 시작하는 날짜보다 며칠 전에 도착하여 교회 데코레이션과 준비물들, 그리고 간식과 음료 등 준비하는 것을 거들며 시간을 같이 하였다. 물론 준비물들 시간엔 각자의 맡은 임무를 숙지하였지만 그 지역에서 처음 하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특히 줌 영상으로 미국과 연결하는 모습-은 모두가 처음하는 것이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염려 속에서 시작되었다.

역시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생겼다. 시작하는 오후 3시 정각 인터넷 네트워크가 오락가락하며 음향 전달이 되지 않았다. 첫날 몇 분간의 시간 지체가 있었으나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가며 둘째 날까지는 은혜롭게 마지막 시간을 끝마쳤을 때의 안도감이 컸다.

모든 것 감사뿐이었다.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시행한 산호세 임마누엘교회의 단기선교는 두 프로그램 모두 성공적으로 마쳐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로스카보스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신비로움이 생겨났고 오토니엘 목사의 개척교회 생명샘교회는 이 계기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함께 많은 스텝들이 동원하여 협력했던 우고 목사의 산한목자교회는 보람을 얻었고 그들은 이웃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났다.

이번 여름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선교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헤롯 가문을 소개합니다! ③ “헤롯의 아들들”

헤롯대왕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고통 중에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던 아들을 사형시키고 자신의 후계에 대한 세 번째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헤롯대왕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으로 아내10명을 두었고 후계자 선정도 복잡했습니다. 요세푸스가 전하는 헤롯 대왕 10명의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정리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헤롯 대왕의 첫 아내 도리스는 이두메인인데 안티파트(Antipater)를 낳았습니다. 안티파트는 헤롯 말년에 고모와 아버지 헤롯을 해치려고 로마 황실과 접촉한 것이 발각되어 헤롯대왕이 최후에 사형시켰습니다. 다음은 마리아네(Mariamne)1세인데 대제사장 시몬의 딸로서 빌립(Herod Philip)과 헤로디아스(Herodias)를 낳았습니다. 빌립은 이복형제 아리스토틀로스의 딸 헤로디아스와 결혼했으나 이복형제 안티파스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마리아네 2세입니다. 그녀는 하스몬 왕족 출신인데 헤롯대왕과 사이에서 알렉산더, 아리스토틀로스, 키프로스 등을 낳았습니다. 미리아네2세(1세와 다른 미리아네)가 헤롯을 무시했고, 헤롯은 왕족인 하스몬 가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마리아네, 그녀의 어머니, 그의 남동생,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로스를 죽입니다. 미리아네 둘째 아들인 아리스토틀로스는 고모 살로메의 딸 베르니케(Bernice)와 결혼하여 헤롯 아그립바 1세등 다섯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네 번째가 사마리아 출신 말다케(Malthace)입니다. 아켈라오(Herod Archelaus)와 헤롯 안티바(Herod Antipas)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헤롯 사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가 자신의 전처를 버리고 조카이자 이복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고 세례요한의 지적을 받았습니

다섯 번째가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

트의 클레오파트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인입니다. 헤롯과 빌립을 낳았습니다. 이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헤롯의 아내들이 다섯 명이 더 있었습니다. 파사엘을 낳은 팔라스, 록사나(Roxana)를 낳았던 페드라, 살로메를 낳았던 엘피스(Elpis), 그리고 사촌 여동생, 조카 등등이었습니다. 헤롯대왕은 10명의 아내로 약 2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0명의 아내 중에 하스몬 왕가 출신 미리아 2세를 가장 사랑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헤롯대왕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 그녀의 두 아들들(알렉산더, 아리스토틀로스)을 처형합니다. 권력을 탐내었던 독재자의 불행이 드러난 것입니다.

헤롯대왕이 죽자마자 아들들이 서로 왕이라는 주장을 하고 유대 사회도 로마황실도 갈팡질팡합니다. 놀란 로마 황실은 헤롯 대왕의 영토를 그의 세 아들이 분할 통치케 합니다. 그 들은 헤롯 아르켈라오(Herod Archelaus), 헤롯 안티바(Herod Antipas), 그리고 헤롯 빌립(Herod Philip)입니다.

헤롯대왕은 최종적으로 아켈라오에게 권력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를 사마리아, 유대와 예돔 지방의 분봉왕(Client King)으로 명합니다. 베를레헴이 아켈라오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켈라오를 피하여 나사렛으로 갑니다(마2:22).

아켈라오 왕은 아버지처럼 잔인하고 불의했습니다. 그의 악행에 분노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아켈라오의 악행을 황제 아우

구스도에 상소합니다. 이에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왕에서 면직시키고 추방시킨 후 이 지역을 로마 총독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파송된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다음은 헤롯 안티바(Herod Antipas)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과 아우구스투스의 동맹 인질로 로마에서 성장합니다. 그가 통치한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활동무대였고 그의 재임 기간과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활동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가 복음서에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헤롯 안티바는 나바테아 아레다(Aretas) 왕(고후11:32)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여정에서 이복동생 빌립 부부와 유숙했습니다. 그때 빌립의 처(이복형 아리스토틀로스 딸) 헤로디아에게 반합니다. 안티바는 헤로디아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결혼합니다. 이일로 그는 세례요한의 지적을 받고, 딸을 버린 안티바에 분노한 아레다 왕의 침략을 받습니다.

셋째 헤롯 빌립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클레오파트라 아들로 이두래와 두라고닛 지방 분봉왕입니다. 헤롯빌립(눅3:1)을 빌립 2세라고 부릅니다. 헤로디아 남편 헤롯 빌립1세와 다른 사람입니다. 빌립2세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축했습니다. 수도 파네이온을 고치고 확장하여 황제에게 헌정하며 빌립이 건축한 황제의 도시라는 뜻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 칭했습니다.

헤롯빌립은 유대인이 없는 지역 분봉왕으로 갈등이나 사건이 없었습니다. 빌립의 백성중심의 통치는 유명합니다. 그는 외출할 때 재판관을 들고 나가 길에서 백성들 상소를 들으면 즉시 재판으로 백성들 마음을 샀습니다. 또 감세 정책도 유명합니다. 아켈라오는 매년 600달란트를 징수했고, 안티바는 매년 200달란트를 징수했는데, 빌립은 100달란트를 징수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빌립을 헤롯가문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 했습니다. 악한 왕 헤롯이 낳은 20명의 자손들의 악행이 1세기 초대교회와 선교 현장에 얽혀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특별기고] 비대면 예배의 문제점(1)

코로나 펜데믹 시대의 교회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지금 우리는 공적인 예배가 멈춰 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신앙적인 관점에 바라볼 때에는, 그야말로 대재앙이다. 모두들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더니,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아예 모이지 않는다. “나쁜 습관”에 중독되어 버렸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토록 철저히 경계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습통을 조이는 총체적인 비상 상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먼저 호흡곤란을 겪는다고 한다. 생명이 소용되지 못하도록, 습통을 조이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습통을 조이는 것도 거리두기라는 초강수 대책의 결과로 빚어지는 비대면이요, 접촉 단절(‘언택트’ untacted)의 시대적 현상들이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the coronavirus pandemic)으로 인해서, 전세계 기독교와 한국 교회는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가공할 유행병이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류는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지만, 그 기간에 교회도 역시 무참히 파괴되었다. 세계대전이 성행할 때에, 자유주의 신학은 기존의 정통신학을 파괴하였다. 전쟁에서의 희생자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신실한 교회들을 파괴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이 교회의 건물들을 파괴하였다. 그런 세계 대전 동안에 교회에의 출석예배는 불가능했다. 동시에, 교회가 붕괴되어서 예배가 활성화 될 수 없는 동안에, 교회의 신학을 무너뜨리려는 혁명주의자들의 선전과 책동이 확산되었다. 기독교의 기본 신학이 침탈을 당했고, 자유주의 신학이 번성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시대상과 신학논쟁은 ‘날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정반대로 ‘변질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윌필드 박사는 핫지 박사와 함께 성경의 엄강성을 변호하였고, 보스 박사와 함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개정에 반대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교회가 각종 집회를 생각한 채, 성도들이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참여하는 예



은평제일교회 교인들이 8일 방호복을 입고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은평제일교회 영상 캡처

배를 축소한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만다. 그 사이에 정통신학과 성경적인 신앙은 혼탁한 이론의 공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인 신학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더 쉽게 세속화 되어지고 만다.

교회가 가능한 한, 모임 수 있는 대안들을 발표하고, 이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 주일 예배에 다 모임 수 없다고 하면, 주중예배를 확대해야 한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모임 수 있는 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과 경배에 참여해야 한다. 소규모 집회를 통해서라도, 새벽기도회처럼 어느 날이나 아침이나 오후에나, 저녁에나, 소규모 집회를 개설해야만 한다. 작은 숫자가 모임이라도, 경건의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야만 한다. 가공할 전염병의 위협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은혜를 받으라고만 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교회의 본질이 손상을 입게 되어서 역동적인 은혜를 나눌 수 없게 되고 만다.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란 소명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집회를 가지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 공동체이다. “에클레시아”는 분명히 회중들의 “모임”이나 “집회”를 가리킨다. 각 지역교회의 “모임”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본질에 해당한다(행 5:11, 11:26, 고전 11:18, 14:19, 28, 35, 롬 16:4, 고전 16:1, 갈 1:2, 살 전 2:14 등).

교회가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

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제가 상실된다. 교회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자, 예배와 기도라는 특수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다. 전통적인 교회론에서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마 18:20)고 하신 말씀을 매우 중요시 했다. ‘에클레시아’라는 곳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어서 긴밀한 교제와 연결하였다. 개인적으로 선택과 소명을 받아 믿게 되지만, 그들이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른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소명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한 지체로 접붙여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란 본질적으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은혜의 상태로 불러낸 사람들의 교제이다.

그러면 이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금지된 비상상태 속에서 어떻게 교제하며, 교통할 것인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당황스러운 조치들 속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가공할 질병 앞에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열심을 내기 보다는 흠여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비록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죽음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참된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집합

금지 명령”에 의해서 흠여지게 될 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다.

2020년 봄부터 거의 1년 반 동안 비정상적인 디지털 방송예배가 마치 정상처럼 유지되고 있는데, 긴급한 비상조치를 마냥 따라갈 수만은 없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집합금지’라는 방법에 대해서, 교회가 무작정 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예배당 좌석에서 단지 20%만이 출석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교회의 모든 집회가 다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크게 훼손당하는 비상사태이다. 교회는 모임을 통해서 기본적인 관계를 지탱해 왔는데, 집회가 축소되면서 모든 목회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크게 손상 시키고 말았다.

이제는 대면예배, 소규모 집합예배, 성도들이 수시로 교회당에 출석하여 드리는 주중예배, 매일 예배가 속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새벽에 드리는 소규모 기도회와 같이, 주중예배 오전이나 오후에나, 매일 소수가 참여하는 주중 예배가 주일예배의 보충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형교회 성도들은 전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인터넷 방송 예배나 유튜브 예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조치에 의한 “비대면 예배”는 엄청난 기독교 신앙의 황폐화가 초래되고 있다. 비성경적인 개인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고, 남녀간의 결혼으로 이뤄지

는 가정보다는 비성경적인 “성의 혁명”을 주장하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당부하면서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절하는 자”를 불법한 자들이라고 명쾌히 지적하였다 (딤후 1:10).

교회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룩한 모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성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모든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어 버렸다. 기계적 편리함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게으름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으며, 아예 교회를 떠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계속)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명예교수
조직신학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인증원
- 기독교회(AB),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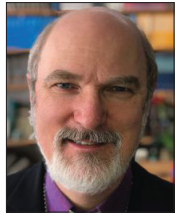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gai.com

WEA “아프간 기독교인들 위해 기도해 달라”

세계복음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이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이 더 큰 위협에 처해 있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냈다.



WEA 차기 사무총장 토마스 슈마허 박사. ©WEA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WEA는 최근 종교 박해, 여성 탄압, 마약 거래 및 인신매매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아프가니스탄과 망명을 시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마스 슈마허(Dr. Thomas Schirmacher) WEA 사무총장은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 최근에 이룩한 발전상과 탈레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전망을 우려하고 있다”며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여성들의 경우 다시금 3차 교육, 전문직 경력, 심지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등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탈레반 치하에 들어간 아프간 모습. ©BBC

슈마허 사무총장은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극심한 탄압을 받아 왔으며, 현재 더 큰 위협에 처한 기독교인들과 소수종교인들의 공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소수민족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04년 헌

법에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이슬람 공화국으로 규정돼 있어, 종교의 자유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

이와 관련, 슈마허 사무총장은 “실제로 모든 소수종교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시아파와 같은 이슬람 소수민족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은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탈레반을 ‘자신의 뜻을 사회에 강요하려는 작은 반군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단순화한 것이라며, 탈레반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서구 국가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고 했다.

슈마허 사무총장은 또 불법 거래와 노예 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탈레반은 각종 범죄 수단, 특히 마약 거래 및 인신매매 등을 통해 많은 자금을 조달 중이다. 소녀들을 성노예로 파는 일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녀들이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다시 한 번 자국 내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는 많은 아프간 국민들,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피난 온 많은 국민들로 인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알게주고 있다.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그것과 함께 고통받는다’(고전 12:26)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지금 매우 암울한 순간을 맞고 있는 전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미 의원들, 바이든 행정부에 ‘낙태수술 강제동원’ 규탄 서한



낙태 반대 시위 장면. ©Unsplash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간호사에 대해 낙태 시술 참여를 강요한 병원에 대한 소송을 행정부가 기각함으로써 법을 어겼다는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21명과 하원 의원 63명으로 구성된 연합은 18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과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지난해 말, 낙태 시술 참여를 강요받은 친생명 간호사를 대신해 보건부 산하 시민권리국(OCR)이 버몬트대학 의료센터(UVM Medical Center)를 상대

로 낸 소송을 바이든 행정부가 기각한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차장을 지낸 클레어 머레이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이미 병원의 양심적 낙태 거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낙태 시술에 다른 간호사를 배정할 수 있었음에도 병원측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이번 사건의 처리를 놓고 “정의에 대한 심각한 오심”이라며 “모든 종교적 신념을 가진 미국인, 특히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방 양심법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거부”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행정부의 조치가 “당신의 행동에 대해 기관이 법을 집행하지 않을테니 당신은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전국의 고용주들에게 알리는 형국”이라며 “현 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보다는, 낙태 로비의 영향에 따라 양심의 침해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 서한은 버몬트대학 의료센터가 ‘교회 개정안(Church Amendments)’을 위반해 연방법을 어겼다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주장을

반영했다.

교회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수혜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낙태 수행에 대한 시술이나 지원을 거부하는 의료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들은 법무부와 보건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요청했으며, 8월 27일까지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 시설과 건강보험 회사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의한 성전환 수술을 거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제공 또는 보장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주, 미국 연방 판사는 종교자유 회복법 위반으로 이 명령을 기각했다.

올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는 미국에서 세금으로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금지해 온 ‘하이드 법안 수정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낙태 반대 단체들과 운동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유진 기자

美 비영리단체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간 가족 구출 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확보하는 가운데, 한 비영리단체 지도자가 개도교로 개종한 8명의 아프간인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980년대 남부 캘리포니아 펜들턴 캠프와 트윈티나인 팜스에 근무했던 빅터 마르크스는 “트라우마 피해자를 식별하고, 트라우마를 끝내고,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독교 비영리단체 ‘올 팜스 퍼서블(All Things Possible)’의 CEO다.

마르크스는 특히 “IS의 영향을 받은 이들과, 소년 범죄자들, 그리고 특수 작전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부서 내 군인들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고 자신의 사역을 소개했다.

2014년 IS가 발흥한 후 이 단체를 세운 마르크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10여 차례 다녀왔다”고 했다.

미군 철수에 이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소수종교인들이 위협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 그는, 탈레반이 쫓고 있는 기독교인 가족을 구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는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

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탈레반이 가족을 붙잡으면, 가장을 죽이기 전에 그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그의 앞에서 부인과 아이들을 살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르크스는 남편이 미국 정부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아프간 출신 여성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됐다.

그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밤새 그들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몇 달 동안 대사관과의 적절한 통로를 통해 빠져나오려고 노력해 왔다. 그들이 발견되고 살해되기 전 빠져나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비밀 무기는 기도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물론 자금 지원에 대한 지지도 보내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미국 국민들은 종교를 떠나 미 행정부가 진정한 인도주의적 구제를 제공하고, 모든 미국인들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들을 데려올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Handwritten text in Korean, likely a testimonial or prayer, mentioning the need for help and the hope of the Gospel.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번역자)_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움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득났은 교회 변화받은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애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성령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중 공산당, 불법 종교활동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릴리스 인터내셔널 페이스북

중국 공산당은 동북부 주민들에게 기독교인을 감시하고 불법 종교활동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보 제공자들에게는 한 번의 보고에 약 18만 원의 포상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지역에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됐다. 이전에는 푸젠성, 광시성, 허난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등지에서 이 같은 포상금이 지급됐다.

미국 크리스천투데이(CP)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메리시시 다우르지구 행정부는 최근 '불법 종교행위 신고 포상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한 뒤, 제보자들에게 최고 1,000위안(약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소재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중국 공산당이) 어느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가정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고 논평했다.

당국은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종교인, 무단 개종활동, 인쇄된 종교 문헌의 설교 및 배포, 예배당 밖에서의 영상물 재생, 등록되지 않은 헌금이나 가정교회 모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는 중국에 약 9,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 정부가 불법이라 여기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치치하얼시 메리시시 다우르지구 연합전선작업부가 최근 공개한 이번 보고서는 "지구 내 불법 종교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종교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접촉, 대중을 동원한 불법 종교 활동을 예방하고 진압하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종교적 경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종교적 박해는 2020년 심화되었으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폐쇄와 기타 인권 유린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보시 보산구와 웨이하이시 산

미국 내 단체 차이나 에이드가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종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강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도 올해 종교인들에 대한 새로운 엄격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면서, 성경 앱과 기독교 위챗 계정 등을 단속 중이다.

“탈레반, 아프간 하자라 남성 9명 고문·학살”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지역 학살 피해자 중 한 명인 굴람 라슬 레자(Ghulam Rasool Rezal, 53)를 추모하는 포스터. ©국제엠네스티

국제엠네스티가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주를 점령한 탈레반이 소수민족인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했다는 새로운 조사를 23일 공개했다. 현지 조사단이 만난 목격자들은 말리스탄 지역의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지난 7월 4일부터 6일 사이 남성 6명이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 끝에 숨졌다고 증언했다.

탈레반은 "이러한 살인 행위에서 보이는 잔혹성은 탈레반의 과거 행각을 상회시키고 그들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이러한 표적 살인은 탈레반이 집권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적·종교적 소수집단이 특히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여, 탈레반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할 것과 출신 민족 또는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아프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및 인권 침해의 증거를 기록·수집·보존하기 위해 강력한 조사기구를 발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의 충돌이 격화됐던 지난 7월, 일부 가즈니 주민들은 산 속 대피소가 있는 방목지로 피난했다. 하지만 식량이 부족해 마을로 다시 내려갈 때, 그들의 집은 이미 약탈당해 있었고 탈레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 남성 3명은 잔혹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됐으며, 특히 자파르 라히미(Jafar Rahimi, 63)는 메고 있던 스카프로 교살됐다.

탈레반은 최근 다수의 점령 지역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공유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탈레반의 만행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력 분쟁 중 고문 및 살인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따르면,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간 분쟁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남성 3명은 방목지를 떠나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문다라크트를 지나가려다, 매복하고 있던 탈레반에게 습격당해 처형됐다. 또 다른 남성 3명은 거주하던 마을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다. 시신 매장을 도왔던 한 목격자는 "탈레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었더니, '분쟁 기간에는 모두 다 죽는다. 총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국제엠네스티 아네스 칼라마르 사무

송경호 기자

총신대·한세대 등, 3년 간 약 140억 정부 지원 못받을 위기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



총신대학교

진단 대상 285개교 중 52개교 미선정돼 일반대 중 기독교 계열이 9곳으로 36%

총신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52대 대학(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이 교육부의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병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진단은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결과에 따르면 이중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지난 2019~2021년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들에 2021년 지원한 재정 규모는, 일반대학은 교당 평균 48억3천만 원, 전문대학은 교당 평균 37억5천만 원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향후 3년 동안 110억~140억여 원의 정부 재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대학은 수도권(이하 가나다 순)은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주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다.

대구·경북·강원은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부산·울산·경남은 △가야대 △부산장신대, 전라·제주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충청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다.

특히 이들 중 신학교와 기독교 계열 대학들이 다수 눈에 띈다. △성공회대 △총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대신대 △부산장신대 △한일장신대다. 일반대학 25곳 중 9곳으로 전체에서 36%를 차지한다.

다만 가결과여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곳들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전 진단에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적은 없었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가결과에 대해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과감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지동 기자

가수 최성봉, 암 폐로 전이... 음악 활동 불투명



©봉봉엔터테인먼트 제공

은누리교회에 출석해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가수 최성봉 씨의 암투병 근황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 봉봉엔터테인먼트는 “올해 1월 두 번째 암 수술에 이어 5월경 세 번째 수술을 받은 최성봉씨는 현재 이미 간과 폐에 전이가 되어 사실상 활동이 앞으로 불투명하다”고 했다. 지난 7월 2일, 최성봉 씨는 5년만의 공백을 깨고 투병 중 신곡 'Tonight'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최씨는 계속 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로 인해 치료비만 회당 수백만원이 들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세 번째 수술 이후에도 매일같이 수심압의 약을 먹으며 고통을 견디고 있는 중”이라 전했다.

최성봉 씨는 신곡 발표 후 노래를 향한 갈망이 더욱 짙어 졌다며 “내 꿈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없는 저에게 노래라는 음절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 준 것은 진심으로 저를 애정 해 주시는 소중한 팬분들이 있었기 때문”,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병석을 떨쳐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저를 위해 늘 기도 해 주시는 팬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 씨는 “계속 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예전처럼 자유로운 호흡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않으나, 이러한 과정 또한 삶을 배우고 음악을 표현하는 아티스트의 소중한 자산이자 과정이되는 경험이며 살아 숨쉬는 동안 숨이 멎는 날까지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최성봉 씨는 고아 출신으로 보육원 등을 거치며 껌팔이·막노동 등으로 생활을 이어오다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뒤 2011 tvN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을 했다.

송경호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rn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초예배 매일 4대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봉주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생애평생 생애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생애평생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애비 성령 성령의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V)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일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운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일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에 오전 11:30(청년 영아)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 수시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1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중세교회사	Daniel Min
Wed	8:30 PM - 10:30 PM	시편강해2	Timothy Song
Thu	7:30 PM - 9:30 PM	고린도전후서	James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2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부부의 평등과 역할에 관한 댄버스 선언문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평등한 관계이며,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정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복음주의적 페미니즘”(Evangelical Feminism)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입장은 결혼 생활에서 평등의 원리만이 존재하며, 남자가 서로 구별되는 구체적 역할의 차이는 없다는 시각입니다. 이를 우리는 “평등주의적 입장”이라고 명명합니다.

이와 다른 상보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이는 남녀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남녀에게 각기 다른 역할이 있고, 이 다른 역할을 통하여 부부가 상호 협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보주의자들은 남편의 “머리됨”(headship), 남편의 리더십의 역할을 인정하려 합니다.

1987년 12월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 연구회”가 매사추세츠주 댄버스에 모여 댄버스 선언문(Danvers Statement)을 발표하였으며, 1988년 11월 이 회의는 최종형태로 일리노이주의 휘튼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현재의 세상과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보완적인 차이에 대한 만연된 혼란, 남편의 사랑과 겸손한 지도력에 대한 등한시, 어머니의 소명적 가정관리에 대한 모호함, 괴이한 성경 해석의 방법과 성적 취향의 수용에 대한 비판을 포함합니다.

댄버스 선언의 핵심은 아담과 이브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남녀의 역할은 창조질서의 한 부분이며, 남편의 머리됨은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정하셨고,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편의 머리됨이 인간 남녀의 존엄이나 동등함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창 2:18, 엡 5:21-33, 골 3:18-19, 딤후 2:11-15).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 됨과 그리스도의 자발적 복종은 동등함의 상실이 없이 어떻게 역할의 분담이 가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주 저희 부부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주일 저녁에 떠나 목요일 저녁까지 오래 건 주의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Crater Lake National Park)과 레드우드 국립공원(Redwood National Park)을 보았습니다. 여행 일정을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그날마다 대략적인 코스를 정해 놓고 자동차로 이동하였습니다. 아내가 불평 없이 즉흥적인 결정을 따라주어 감사하고, 여행 중 10만 마일이 막힌 자동차도 제 역할을 잘 해주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동차 여행 중에는 부부가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이 종일 붙어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도와야 합니다. 만4일 동안 부부의 역할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21세기가 5분이 1일이 지난 지금,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파괴된 부분은 어디일까요?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그중에 가장 흔들리는 부분은 “결혼”과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변함없는 관점

올림픽이 준 교훈



진유철 목사
나선순복음교회

때문에 가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더 힘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심판을 바르게 믿을 때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 하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포커스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 성경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하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탄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가 구원의 메시지를 그토록 오래 전했지만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몰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식구 8명만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과 모세를 통한 메시지로 애굽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강박하게 한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강력한 군대와 수많은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으로 죽고 또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어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설교에도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25장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3가지 비유의 말씀에서도 5명의 미련한 신부들은 졸며 자다가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은 저주를 받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겠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세상과 죄를 이기려고 믿음을 훈련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따파와 눈물로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하며 훈련한 선수들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과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본 국민의 70% 정도가 반대한다는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기사와 방송을 통해 긍정적인 해답을 얻었고 큰 도전도 받았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선수가 선수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올림픽과 같은 큰 시험이 없다면, 연습과 훈련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또 땀과 인내의 감동과 눈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스포츠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시험이 당장은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시험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서 장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학교일수록 시험이 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급과 심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바르게 믿어야 할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심판과 상급이 있기

칼럼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광복의 정신



이돈하 목사
오래곤 뵤엘교회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과 LG의 TV, 모니터, 갤럭시 스마트폰 등의 가전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전자 제품이 없습니다.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식은 먹기 위해 물려드립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열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K팝에 K방역까지 한국 오천년의 역사상 세계가 지금처럼 한국을 주목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어두움도 심각합니다. 자살률, 성형수술 횟수, 노인빈곤률, 가계빚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열등감, 비교의식, 지역과 이념간의 갈등으로 불행지수 역시 OECD국가 중 최고입니다. 게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로 누적감이 최대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복절(光復節)은 “빛이 돌아온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복절의 정치적 의미는 일제 치하 35년을 끝내고 자유의 빛이 회복된 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광복의 정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요 8:12). 또한 예수님은 성도 역시 당신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취야 한다고 했습니다(마 5:14). 따라서 우리는 광복절을 맞아 예수님의 빛을 의지해서 우리 각자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비취는 빛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과거만 돌아보면 안됩니다. 과거만 생각하면서 빛이 돌아왔던 날이라는 사실만 기억해서는 안됩니다. 이 정도에 그치지 말고 빛된 그리스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기화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낙심과 절망으로 피로감이 무겁게 쌓이고 장래가 보이지 않는 나의 어두운 내면 속에 예수님, 저는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형적인 풍요 속에서도 영적으로 어둡고 대책 없이 방황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에 예수님의 빛이 돌아오고 회복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빛이 되기로 결단하는 광복절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의 빛이 회복하는 광복절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멀어진 자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고, 나를 통해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길러져 그 역시 다

연병으로 희생당한 수많은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의 위생과 방역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멈추면 안됩니다.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닌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창의적인 대면과 비대면의 전도 전략을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습득한 효과적인 노하우를 동역자들과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해야 합니다. ZOOM을 통한 화상 전도, 복음을 나누고 싶은 형제 자매들의 집 앞에 정성껏 만든 음식이나 커피를 두고 오거나 따뜻한 문자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관계전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별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밝게 빛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선행도 모두가 자신의 생존에도 바쁜 어두운 코로나 시대 대일수록 더욱 밝게 빛날 수 있을 여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돌아오고 그 빛을 다시 온누리에 전하기로 다짐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53-22
 공미라고
 마그네틱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상복구만 안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마태복음 21:42-46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42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중략)...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알고 46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너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있더라

시편118:22-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건축자들에게 필요한 돌은 주춧돌입니다. 이것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쓸모없다고 내어버리게 될 때 그 집은 머릿돌을 제공하신 이의 뜻대로 지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계약을 성취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머릿돌의 가치와 용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문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계약의 성취라는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만일 머릿돌로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계선교의 본거지로 인류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 영적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로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머릿돌도 제공해 주셨음에도 그 설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설계를 하고 그 돌의 본질과 용도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문밖에 끌어내어 골고다 언덕에 갖다 내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돌은 베드로전서 2:4-5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을 짓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교회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도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돌의 가치와 용도를 전세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해 주심이 오늘과 같아서 교회를 통하여 알게해 주시고 우리가 세계선교를 하는 것 또한 이 돌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이 돌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계약의 대상인 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계약에는 외인인인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12에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실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받음으로 남자들마다 육체의 표식을 가졌고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 돌(Living Stone)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너의 영적인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도록 하라고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는 살아있는 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머릿돌을 내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43절)고 합니다. 허락된 그나라 이스라엘은 하늘나라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신령한 소망을 가꿀 줄 몰랐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하늘나라를 허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하십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릿돌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로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신령한 성령을 짓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소망만 가꾸는 백성이리하면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신령한 소망을 목적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을 삼은 신앙건축자가 되지만 하면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2.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돌이 세계만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세계각국에 소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물질로 애를 쓰며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그 돌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성령으로 하늘 소망에 결실할 가능성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교회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와 물질로 선교 뒷바라지를 하고 애를 써서 이 돌의 가치와 용도를 소망적인 복음으로 애타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외면하며 사는 인생들의 결과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하셨습니다.

이 돌은 건축자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신령한 소망에 믿음을 잘 건축하는 사람은 그 돌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의 구원을 얻지만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볼만 하도록 증거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불신앙으로 거부하며 발악하고 대적했다가 스스로 세상조건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인생은 깨어져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그 돌이 사람위에 떨어져도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고 하셨으나 그 인생의 심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7:52절 이하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을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어졌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에 가책을 느꼈음에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고 도리어 이를 갈며 돌을 던져 스테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깨달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반석으로 소개되는 예수님, 산돌이시며 보배로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이 돌의 본질과 가치와 용도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영문 밖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3.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돌에 붙어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불신자들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돌에 붙어사는 이들은 구원을 얻고 심판에도 동참을 합니다. 이 돌에 붙어사는 이들은 이 돌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돌에 붙어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3-4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지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자라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기만 하다고 산돌인 예수님 곁에 있어도 붙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착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절대주의 신앙,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만 사는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사는 자가 되고 성령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를 예수님께 완전히 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며, 그 돌이 떨어져 부서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가장 안전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I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I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I650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MI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up \$2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 -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나홍진의 <랑종> (2)

영화 <곡성>과 <랑종>, 영적 실상 비트는 기독교와 무속 혼합

인간 스스로 영혼 문제 해결 못함 알려주는 영화 영적 실상 앞에서 겸허한 태도 갖도록 권고 효과 <곡성>과 <랑종>, 기독교와 무속 경계 흐려버려 성경, 귀신들림 문제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 강조

◆기독교와 영적 실상: 성경 속 귀신 들림과 무속의 귀신들림

신약성서를 기록한 이들,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복음서와 사도행전 기자들은 귀신을 비롯한 영적 실상을 드러내 밝히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빌립 같은 복음전도자들의 귀신 쫓는 사역을 자주, 반복적으로 기록했다. 그 가운데 몇몇 경우에는 귀신에 붙들린 자의 말과 행동까지 자세히 기록했다.

영화 <곡성>의 감독이자 <랑종>의 시나리오 원안을 기획한 나홍진 감독은 스스로를 기독교 신앙인이자 자처한다. 물론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적 기독교인의 사고를 가진 것 같지는 않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들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서로 상통하는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깊은 관심을 보이는 '개방적'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다. 종교 간 대화 유형으로 보자면 포괄주의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

그런 그의 관점에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귀신 관련 체험들과 무속의 귀신 체험 사이 공통점은 대단히 매력적인 소재였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그의 관심은 <곡성>에서도 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영(靈) 무명(천우희 분)이 '의심하는 죄'를 언급하고 '닭이 세 번 울기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또한 악마(쿠니무라 준 분)가 자기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를 인용하는 장면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이처럼 <곡성>을 기획할 당시 나홍진 감독은 귀신들림이라는 영적 현상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과 무속 체험의 접점을 찾아 양측을 혼합하는 데 주력했고, 이러한 전략은 기괴한 영적 실상에 관심이 있는 대

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영화 <랑종>은 비록 불교국가인 태국의 무속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곡성>보다도 더 성경 속 귀신 관련 기록에 가까운 귀신들림의 현상들이 묘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만난 귀신들린 자와 <랑종>의 주인공 밍(나릴야 군몽콘 켈 분)의 귀신들린 상태가 매우 흡사하다.

거라사 지방의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자에게는 군대, 즉 많은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었다(눅 8:26-39). <랑종>의 주인공 밍에게는 '피 파이팅글롭', '피뽕', '피 낭타니' 등 온갖 '피(태국 말로 죽은 이의 영을 가리키는 말)'들이 들어가, 그녀의 정신과 몸을 한꺼번에 망가뜨린다.

양측 모두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려 자기 몸의 지배권을 잃은 채 극단적 폭력성과 자기파괴적 성향을 드러낸다. 성경에 묘사된 귀신들린 자와 <랑종>의 주인공 밍은 이처럼 매우 유사한 귀신들림의 현상적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기독교와 무속: 서로 다른 영적 원리에 따른 귀신들림의 이해

'밍'이라는 캐릭터가 귀신들린 모습을 살펴보면, 나홍진 감독은 물론 이겨니와 <랑종>을 직접 감독한 반종 피산다나운 감독 역시 태국의 무속에 관련된 영적 실상과 체험들을 상당히 성실하게 조사하고 영화에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영화 <랑종>의 귀신들림에 관한 묘사 가운데 여러 부분이 성경의 귀신들림에 관한 기록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반종 감독이 사전조사 당시 여러 랑종들(무당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내용들, 과장되지 않은 현상적 사실들



영화 <랑종>의 한 장면. 귀신을 내쫓기 위해 무당이 인간힘을 쓰고 있다.

그대로를 영화에 담아내려 했던 노력 덕분일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는 분명 페이크 다큐 형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거의 실제 다큐멘터리나 다큐임을 정도로 사실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

<랑종>의 이런 사실적 요소들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영적 실상 앞에서 겸허한 태도를 가지도록 권고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귀신들림의 현상 이면에 어떠한 영적 원리가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해, 기독교와 무속은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 차이는 영적인 저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의 해법을 찾아가게 만든다.

영화 <곡성>과 <랑종>은 모두 이러한 차이와 경계를 흐려버린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이나 무속의 주술 모두 기괴하고 파괴적인 영적 체험들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인간이 종교적 방편을 통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시도는 부질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나홍진 감독이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이러한 주제 의식에 따라, <곡성>과 <랑종> 두 작품 모두는 귀신을 둘러싼 영

적 실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무속의 이해를 이리저리 뒤섞어 버린다.

무속은 귀신들림이라는 문제를 대단히 어렵게 취급한다. 그래서 '용한' 무당을 찾고, 온갖 의식을 행하며, 수많은 금기사항을 지시한다. 그렇게 해서도 귀신들림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자주 사달이 나곤 한다.

영화 <곡성>과 <랑종>은 이런 무속의 실태를 귀신들림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에도 그대로 투영한다.

성경은 영적 원리상 귀신들림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여기에는 무속의 굿과 같은 주술적인 의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교회에서 귀신들림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과 무속에서 귀신들림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별 차이가 없다는 나홍진 식 메시지는 오히려 왜곡의 산물이다.

나홍진 감독이 파악한 귀신들림의 실상은, 물론 현상적으로 실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엄연한 한계를 보인다. 그는 무속에서 바라본 깊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귀신들림과 그 해결책을 무속의 현상적 체험을 기반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애초 심층적인 영적 원리가 전혀 다른 두 영역의 믿음과 이해방식을 임의적으로 하나로 혼합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곡성>과 <랑종> 모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모호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모호성은 영화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해석의 여지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즐거움을 선사할지 모르나,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영적 실상에 대해 다소 무책임하게 접근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곡성>과 마찬가지로 <랑종> 역시 서로 다른 믿음의 내용과 요소들을 과격하게 동일시하는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종교혼합주의를 추

종한다. 이는 각 종교의 고유성, 특히 기독교 신앙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실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형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란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스어로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브리콜라주 기법의 쉬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두꺼운 골판지로 필통을 직접 만든 뒤, 그 위에 각자의 관심사를 이루는 온갖 조각 사진들(날렵한 스포츠카, 미인 여배우, 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유행이 있었다.



영화 <곡성>의 악마(쿠니무라 준 분). 작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인용한다.



영화 <랑종>의 무당 님(싸와니 우툼마). 악귀를 쫓기 위해 주술적 의식을 행하는 장면.



영화 <랑종>이 보여주는 귀신들림에 대한 이해는 결국 무속의 관점에서 기독교적 영적 이해를 비트는 접근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도인의 아트독서

책 쓰기는 하나님의 미션이다

요즘 젊은이들, '한경직' 은 몰라도 '함석헌' 은 안다는데...

◆ 책은 하나님을 알리는 최적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미션'이란 '하나님의 선교'를 말한다. 하나님의 미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책으로 선교하는 것이다. 배성우, 서상우가 공저한 《그리스도인의 책 쓰기 미션》이라는 책에서는, 책 쓰기가 그리스도인의 미션이라고 말한다. 책 쓰기는 그리스도인의 미션이며,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주류 종교로 자리잡았다. 외적 규모에서 보면 그렇다. 하지만 책만 놓고 보면 주류가 아니라 변방 같이 느껴진다. 타 종교, 특히 불교 승려들 중에는 책으로 불교를 알리는 작가들이 수도룩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목회자 작가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책 쓰기를 하나님의 미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을 통한 선교가 필요한 시대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이 대세가 되자, 책 쓰기를 통한 하나님의 미션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다수는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19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책보다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목회를 추구하려 한다.

그리스도인은 책 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책으로 하나님의 미션에 열정을 보태야 한다.

세계가 우리나라 프로축구인 'K리그'를 아는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정도는 알아요, K리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에 우리도 베트남 축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지금은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 축구를 알게 되었다.

기독교를 알리려면 사람으로 알리는 것이 기본이다. 사람으로 알리는 것은 책을 통해서다. 베스트셀러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법륜, 해민 스님을 아는 것은 그들이 전국적인 작가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어떤가? 그저 대형교회 밖에는 알려진 게 없다. 책의 파급력이 엄청나므로, 목회자가 전국적인 작가가 되어 탁월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김도사(김태광)와 권마담이 쓴 《김대리는 어떻게 1개월 만에 작가가 됐을까》에서 이런 말을 한다.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설교함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종교인으로서의 메시지를 한 권의 책으로 펴낸다면 그 책이 세상 곳곳을 누비며 분신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을까?”

목회자의 설교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은 세상 곳곳을 누비며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책 쓰기를 사명으로 알고 해야 한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에 국한된 책으로는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책으로 해야 한다.

기업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마케팅을 한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만든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알리는 방법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강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영향력이 큰 것이 책이다.

책은 특히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데 최적의 도구는 책이다. 그러므로 책 쓰기에 도전해야 한다.

◆ 세상에 진리를 알리려면 책을 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세상은 진리를 모른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알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 중 영향력이 막강한 것이 책이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오로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기독교 안에서만 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턱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필자가 예전에 말했듯,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되지!”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 서적만 보면 되는 거 아냐?”

이 말은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 “엄마, 왜 먹을 것이 없어? 빵 먹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불교의 유명 작가들은 불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한경직 목사(왼쪽)와 함석헌 선생.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도 책을 통해 기독교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 책의 영향력은 세대를 뛰어넘는다

중동 지역에서 전설적인 선교 사역을 한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는 문서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쇄물은 결코 주춤거리지 않으며, 결코 비겁하지 않고, 타협의 유혹을 받지 않으며, 지지거나 낙담하는 법이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때도 일하고, 냉정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일한다.”

아주 공감되는 말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왜 책을 써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잘 보여준다. 책은 우리가 잘 때도 쉬지 않고 일하며,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써야 한다. 우리가 남긴 책이 일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쓰되, 세상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써야 한다.

영락교회 한경직牧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였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20년쯤 지나자, 젊은 사람들은 물론 젊은 목회자들조차 그를 잘 모르게 되었다.

하지만 젊은이 중에 함석헌 씨를 아는 사람은 많다. 그 이유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등 함석헌 씨가 남긴 책을 통해 그의 사상이 젊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책의 힘이다.

독서를 시작한 뒤 나는 이런 결

심을 했다.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겠다.”

“책으로 기독교를 세상에 알리겠다.”

필자가 가장 먼저 출간한 책이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독서'에 관한 책과 '에세이집'이었다. 적절한 출판사를 만나지 못해 큰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다시 도전하려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

◆ 그리스도인이여! 책 쓰기에 도전하라

'아트설교연구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글쓰기와 책 쓰기다. 책 쓰기를 독려한 결과 1년 만에 <아트설교 시리즈>, <아트 에세이 시리즈> 13권 정도를 출간했다.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책 쓰기에 도전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책을 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세상 사람들보다 책 쓰기에 관심이 적고, 도전하지 않는다.

책 쓰기 세미나에 갔을 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3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 책을 쓰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10여 명의 젊은이에게 종교를 물어보았더니, 그중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책 쓰기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설교자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충격이 컸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근면·성실로 본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이 복유업에만 해당할 뿐, 한국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것 같아 착잡했다. 근면·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도전하는 일에 앞서가야 한다. 책 쓰기도 마찬가지이다.

◆ 책이 최적의 전도법이다

스페인 신부이자 작가인 발타사르 그라시안(Baltasar Gracián)이 이런 말을 했다.

“기록은 기억을 남긴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기록은 하나님을 알린다.”

책으로 기록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알려진다. 성경책으로 하나님이 저절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책이 하나님을 알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책이 최적의 전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시대, 유튜브 전성시대에 전도하는 최적의 방법이 책 쓰기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통해 일하셨듯, 그리스도인의 책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성경 작가들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렸다면, 이제 우리가 책을 써서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

'명품 인생'이 있다면, '명품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명품 그리스도인인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리고, 죽은 뒤에도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명품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책을 쓰는 사람이 명품 그리스도인이다.

죽은 뒤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그가 남긴 책이다. 그러므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책을 써야 한다.

책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식임을 믿음의 작가들이 증명했다. 수많은 사람이 존 번연의 《천로역정》, 표도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등의 고전을 읽으며 신앙에 눈을 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신앙의 세계로 입문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책 쓰기에 동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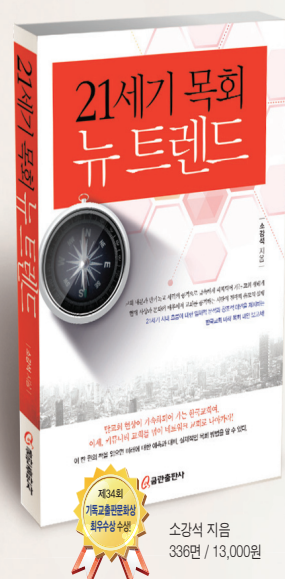
김도인 목사 아트설교연구원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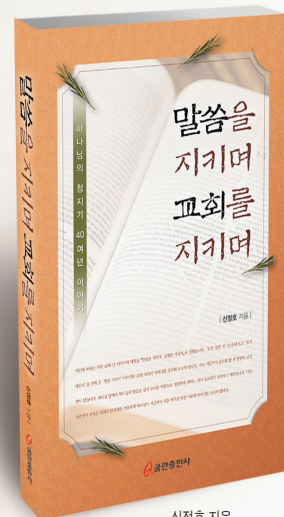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재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59년 울산 문연사로 출생하여 한국연변교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선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등을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고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회 최우수상, 미션 푸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회 최상 수상, 천상명문대학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이사장,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조의 목장영성과 아름다운 순명에서 나오는 그의 절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339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를 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철호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정호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변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도부 회장, 총회 군 놓이촌 부원,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연변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380면 / 15,000원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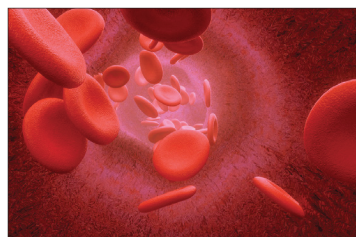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을 높이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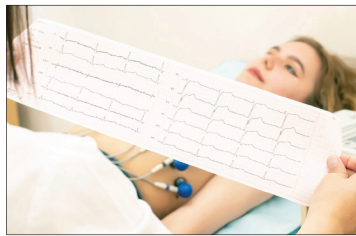
효과적인 혈당 강하를 원하시는 분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시는 분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



건강이 염려 되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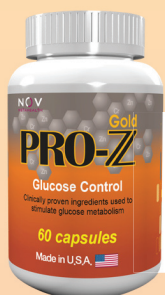


생활습관이 불규칙 하신 분

섭취방법

섭취시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식사 30분 전과 잠자기 1시간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세요.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